〔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6, No. 8 (2002) p.1274~1285

고등학교 家政科 교과서에 나타난 의복구성 분야 내용 분석

The Comparative and Analytic Study on Clothing Construction Area in the Contents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부교수, *배화여자대학 의상과 강사
이 경 화 · 이 혜 영*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t. of Clothing, Baewha Women's College
Kyong-Hwa Yi · Hye-Young Lee*

(2002. 5. 15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help the authorized textbooks on home economics be selected and used effectively, to provide basic data that are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 economics textbooks, and to suggest a next curriculum on home economics.

In the study, eight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6th Curriculum developed by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wide differences in degrees of diversity and accomplishment in the contents of textbooks. In comparison, it was unfolded that three areas, "family", "home resource management" and "consumer", occupied much larger portions than other areas. About 81 percent of the authors of home economics textbooks were professors.

A contents analysis on the clothing area showed that every textbook includes costume culture, clothing materials, clothing maintenance, and clothing construction. The presentation coverages and relative difficulties of textbooks were, however, diverse. It is somewhat noticeable that, while fewer professors majoring in clothing construction participated in writing, generally more pages were allocated to clothing construction than other areas.

While presentations on anthropometrics method, construction theory, draft theory, usage of sewing machine and fitting theory were insufficient, most textbooks were dealing with drafting of basic slopers and sewing procedure, etc. Making-up techniques on the apparels items such as Korean traditional men's pants, pajamas, shirt, vest, skirt, pants, apron and Korean pouch were handled closely in each textbook.

Key words: Home Economics textbook, Clothing Construction, Content Analysis;
가정교과서, 의복구성, 내용 분석

I. 서 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내용은 의 · 식 · 주 · 소비자의 4개 영역과 이 4개 영역에 아동 분야를 포함하는 5개 영역으로 나누어 편제되어 있으며, 이 중 의생활 분야의 경우 섬유 소재, 디자인, 복식사, 한복 및 서양복 구성, 피복 관리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송자(1993)의 연구에서 가정과 실험 · 실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학생의 94.1%, 교사의 89.0%가 가정과 실험 · 실습이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의생활 영역에서의 실험 · 실습의 내용은 전체의 38%가 부적합하다고 하였고, 이중 여자저고리 만들기(27.1%)와 원피스드레스 만들기(14.6%)에 대한 실습 내

용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몇몇 선행 연구에서 보듯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는 가정과 교과 내용 중 의복구성 관련 분야에 대한 요구도와 흥미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성화경, 1994), 실제 의복구성과 관련된 실습, 예를 들면, 재봉틀 실습과 봉제 등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 재봉틀 등의 실습 기구가 부족해 의복구성실습이 과제물 제출로 대체되거나, 손바느질 위주로 구성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선 고등학교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의복구성을 학습한 학생들이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상황은 대학 진학 및 학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의류학 전공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 질 수 있고, 특히 의복구성을 바느질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 8종을 수집하여 각 교과서간의 편제와 세부 영역별 내용을 비교분석하되, 이중 의복구성 분야를 한복구성과 서양복구성분야로 나누어 교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8종 교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선점을 제시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도움을 주며,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가정 교과 수업 시 학생들의 수준과 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복구성 분야의 교과 내용을 제언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가정학 관련 전공으로의 대학 진학률을 증대시키며, 이들의 대학 진학시 대학내 교과 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교과서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1995년에 교육부 검정을 필한 6종과 1996년에 교육부 검정을 필한 2종 총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연구대상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교과서

구분	출판사명	검정년월일	저자명
A	(주)교학사	1996.6.11	유송옥 외 7인
B	(주)중앙교육	1995.9.30	성화경 외 7인
C	(주)교문사	1995.9.30	유영주 외 7인
D	(주)지학사	1995.9.30	김은애 외 6인
E	(주)금성출판사	1996.6.11	이인희 외 5인
F	(주)천재교육	1995.9.30	이승신 외 6인
G	(주)두산	1995.9.30	서병숙 외 6인
H	교학연구사	1995.9.30	윤인경 외 5인

2. 분석 내용

분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가정 교과서의 체제 및 집필자 구성, 지도 영역과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1) 교과서의 체제 즉, 전체 쪽수, 교과내용과 관련된 쪽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2) 교과서의 지도 영역과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즉, 영역의 구성 수 및 구성 내용과 비중 분석, 부록의 내용과 비중 분석을 행하였다.

2) 가정 교과서 중 의류학 영역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교과서 중 의류학 영역내에서 각 세부 영역 즉, 피복재료, 복식디자인, 피복관리, 의복구성 영역별로 내용 분석하였다.

3) 가정 교과서 의류학 영역 중 의복구성 관련 소영역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의복구성영역을 다시 서양복구성 영역과 한복구성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내용을 원형제도, 봉제 등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과 기술적 연구 방법에 의한 연구로서 연구의 과정은 자료의 수집

과 분석, 분석한 내용간의 비교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토의

1. 교과서의 체제 및 집필자 구성, 지도 영역과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1) 교과서의 체제 비교 분석 결과

교과서의 총쪽수, 본문쪽수 및 세부 영역별 쪽수를 제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쪽수의 경우 G교과서가 358쪽으로 전체 교과서 중 가장 적었으며, H교과서의 경우는 387쪽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교과서의 경우 전체 쪽수차가 무려 29쪽에 달해 교과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예측할 수 있다.

본문 쪽수의 경우는, A교과서가 가장 적고, C와 H교과서가 가장 많은 쪽수를 나타냈다. 총페이지와 본문 페이지의 쪽 차이를 볼 때, G교과서처럼 적게는 6쪽, D교과서처럼 많게는 27쪽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세부 영역별 쪽수를 비교한 결과 가족/가정자원관리/소비자 영역의 할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분야는 B,C,E,F,G교과서에서는 가장 적은 양으로나마 다루고 있으나 A,D,H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의생활 분야의 경우는 G와 H교과서를 제외한 전 교과서에서 식생활분야보다 작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주생활의 경우는 아동을 제외한 전체 세부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교과서의 평균값으로 비교해 볼 때, 가족/가정

〈표 2〉 교과서 체제 특성 비교

구분	총쪽수	본문쪽수(%)	세부영역별 쪽수					
			가족/가정자원관리/소비자(%)	아동(%)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기타(%)
A	363	351(100.0)	122(34.8)	0(0.0)	86(24.5)	86(24.5)	51(14.5)	6(1.9)
B	384	358(100.0)	108(30.2)	52(14.5)	62(17.3)	77(21.5)	52(14.5)	7(2.0)
C	383	374(100.0)	96(25.7)	48(12.8)	84(22.5)	84(22.5)	54(14.4)	8(2.1)
D	383	356(100.0)	122(34.3)	0(0.0)	80(22.5)	95(26.7)	48(13.5)	11(3.4)
E	383	364(100.0)	98(26.9)	46(12.6)	75(20.6)	84(23.0)	51(14.0)	9(2.5)
F	368	358(100.0)	88(24.6)	48(13.4)	77(21.5)	81(22.6)	55(15.4)	8(2.2)
G	358	352(100.0)	96(27.3)	42(11.9)	76(21.6)	70(19.9)	60(17.0)	8(2.3)
H	387	374(100.0)	142(38.0)	0(0.0)	84(22.5)	82(21.9)	56(15.0)	10(2.7)
평균	376.12	360.9(100.0)	109.0(30.2)	29.5(8.2)	78.0(21.6)	82.4(22.8)	53.4(14.8)	8.6(2.4)

〈표 3〉 교과서 저자의 특성 (단위: 명)

구분	저자수	구성		교수저자의 전공구성							
		교수	교사	가족	가정자원관리	소비자	가정교육	아동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A	8	6	2	0	1	0	0	1	2	2	0
B	8	8	0	0	1	0	0	2	2	2	1
C	8	8	0	1	0	1	0	1	2	2	1
D	7	6	1	0	0	1	0	1	2	1	1
E	6	4	2	0	1	0	0	0	1	1	1
F	7	4	3	1	0	1	0	0	1	1	0
G	7	6	1	2	0	0	0	0	2	2	0
H	6	6	0	1	1	0	1	0	1	1	1
평균	7.12	6.00	1.12	0.62	0.50	0.37	0.12	0.62	1.62	1.50	0.62
				1.49							

자원관리/소비자 분야가 109쪽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그 다음이 식생활 분야로 82.37쪽, 그 다음이 의생활 분야로 78쪽, 그 다음이 주생활로 53.37쪽, 마지막으로 아동분야는 4개 교과서 평균이 29.5쪽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별 저자의 수와 전공구성을 제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 H교과서의 저자수는 6명, D, E, F 교과서는 7명, A, B, C 교과서는 8명으로 나타났다. 구성별로 볼 때도 A, D, E, F, G 교과서는 1명 이상의 교사를 집필진에 포함시켰으나, B, C, H 교과서의 경우는 교사는 배제시키고 교수로만 집필진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를 제외하고 교수만을 대상으로 세부 영역별 저자의 세부 전공을 비교해 볼 때, 의생활 분야 전공 교수의 참여가 평균 1.6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생활, 가족/가정자원관리/소비자 분야 전공교수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동분야와 주생활분야 전공교수의 참여가 높았지만, 가정 교육 전공 교수의 참여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 의생활과 식생활의 경우는 모든 교과서에서 집필진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며, 주생활 분야는 전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A, F, G교과서에서는 전공 교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동 분야의 경우, 이 분야를 포함시키는 교과서는 B, C, E, F, G 분야인데 비해, 저자 구성으로 볼 때, A, B, C, D 교과서에서만 아동학 전공교수가 포함되어 있어 B와 C교과서에서만 저자와 교과 지도 영역이 공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교과서의 지도 영역과 교과 내용 비교 분석 결과

교과서의 지도 영역을 가족/가정자원관리/소비자, 아동,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의 총 5분야로 나눈 후 교

〈표 4〉 목차에 나타난 지도영역별 교과내용 분석

구분	지도영역 별 교과내용 분석				
	가족/가정자원관리/소비자	아동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A	·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 의생활관리	· 식생활관리	· 주거의 계획과 관리
B	·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 의생활관리	· 식생활관리	· 주거의 계획과 관리
C	·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 의생활관리	· 식생활관리	· 주거의 계획과 관리
D	·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 의생활의 관리	· 식생활의 관리	· 주거의 계획과 관리
E	·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 의생활관리	· 식생활관리	· 주거의 계획과 관리
F	·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 의생활관리	· 식생활관리	· 주거의 계획과 관리
G	·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 의생활관리	· 식생활관리	· 주거의 계획과 관리
H	· 가족생활 ·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 의생활관리	· 식생활관리	· 주거의 계획과 관리

과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동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B, C, E, F, G교과서, 의생활과 식생활 및 주생활을 담고 있는 전체 교과서의 목차에서 본 교과내용의 제목은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가족/가정자원관리/소비자 분야의 경우, A와 D교과서는 첫장이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B, C, E, F, G 교과서는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H는 "가족 생활"의 3종으로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교과서 중 의류학 영역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의류학분야는 복식사/한국의복구성, 의류상품학/복식심리, 복식미학/패션디자인, 의복환경학, 의류소재/의류정리, 서양의복구성으로 세분할 수 있다(학술진흥재단, 2002). 이 분류에 따라 교과서 집필진 중 의류학분야 교수의 전공을 정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의류학분야 전공 교수의 총 저자수는 A, B, C, D, G교과서는 2명이었으며, E, F, H교과서는 모두 1명이었다. 세부 전공으로 볼 때, 의류소재/의류정리 전공교수는 전체 세부 영역중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의류상품학/복식심리 전공교수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미학/패션디자인 전공 교수의 참여도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식사/한국의복구성, 서양의복구성 전공 교수의 참여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 환경학 분야 전공교수는 교과서 집필 시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과서의 각 영역 중 의류학 분야만을 독립시켜 총쪽수, 본문쪽수, 세부영역별 쪽수를 제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단, 의류학 분야의 세부영역은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목차 제목에 근거해 복식사회, 피복재료, 피복관리, 의복구성 영역으로 나누어

〈표 5〉 의류학분야 저자의 특성 (단위: 명)

구분	저자수	의류학 전공교수의 구성					
		복식사/한국의복구성	의류상품학/복식심리	복식미학/패션디자인	의복환경학	의류소재/의류정리	서양의복구성
A	2	0	0	1	0	1	0
B	2	0	0	0	0	1	1
C	2	0	0	1	0	1	0
D	2	0	1	0	0	1	0
E	1	0	0	0	0	1	0
F	1	1	0	0	0	0	0
G	2	0	1	0	0	1	0
H	1	0	1	0	0	0	0
평균	1.62	0.12	0.37	0.25	0.00	0.75	0.12

〈표 6〉 의류학분야 교과내용 분석

구분	총쪽수	본문쪽수(%)	세부영역별 쪽수			
			복식사회(%)	피복재료(%)	피복관리(%)	의복구성(%)
A	86	84(100.0)	26(31.0)	20(23.8)	12(14.3)	26(31.0)
B	62	60(100.0)	14(23.3)	21(35.0)	9(15.0)	16(26.7)
C	84	83(100.0)	26(31.0)	24(28.9)	12(14.5)	21(25.3)
D	80	79(100.0)	17(21.5)	21(26.6)	12(15.2)	30(38.0)
E	75	74(100.0)	11(14.9)	25(33.8)	15(20.3)	23(31.1)
F	78	77(100.0)	12(15.6)	22(28.6)	16(20.8)	27(35.1)
G	76	75(100.0)	22(29.3)	24(32.0)	11(14.7)	18(24.0)
H	84	82(100.0)	12(14.6)	22(26.8)	13(15.9)	35(42.7)
평균	78.12	76.8(100.0)	17.5(22.8)	22.37(29.0)	12.5(16.3)	24.5(31.9)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복구성분야가 가장 많은 쪽수였으며, 그 다음이 피복재료, 복식사회, 피복관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의 저자의 전공구성 결과에서 서양의복구성과 복식사/한국의복구성 전공 교수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교과서의 집필시 교과지도내용에 따른 전공교수의 참여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의류학 세부 분야별 교과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복식사회 분야의 경우 "의복과 인간과의 관

〈표 7〉의류학 분야별 교과내용 분석

구분	지도영역별 교과내용 분석			
	복식사회	피복재료	피복관리	의복구성
A	1. 나와 의복과의 관계 (1)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2) 아름다운 옷차림을 위한 의복디자인/(3) 의복선택	2. 옷감과 의복 (1)옷감이 갖추어야할 성능/ (2)섬유의 종류와 특성/ (3)실과 옷감	3. 의류의 세탁과 보관 (1) 세탁 (2) 보관	4. 의복구성 (1) 의복구성방법/ (2) 의복 만드는 기초과정/ (3)잠옷만들기
B	1. 의복과 인간과의 관계 (1)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2) 의복의 생산과 유통/ (3) 의복계획과 기성복구입/ (4)기성복의 이용	2. 의복재료의 종류와 성능 (1) 섬유 (2) 실과 옷감	3. 의복의 세탁과 보관 (1) 세탁 (2) 얼룩빼기	4. 간단한 의복만들기 (1) 의복 만들기의 기초 (2) 간단한 옷 만들기
C	1. 의복과 개인 (1)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2) 의복의 선택	2. 의복재료 (1) 의복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 (2)섬유/(3)실/(4)옷감/(5)염색과 가공	3. 의복관리 (1) 평소의 의복관리/ (2) 세탁/ (3)다림질/ (4) 의류의 보관	4. 옷만들기 (1) 한국의복 (2) 서양의복
D	1. 의복과 개인과의 관계 (1) 의복의 기원/ (2) 의복의 기능/ (3) 의복의 선택/ (4) 의복의 구매	2. 의복의 재료 (1)옷감의 형성과 종류/ (2) 옷감의 재료/ (3) 옷감의 성능/ (4) 옷감의 가공	3. 의복의 관리 (1) 세탁의 실제 (2) 의복의 보관	4. 옷만들기 (1) 의복구성의 원리/ (2) 치수재기/ (3) 원형제도/ (4) 조끼만들기
E	1. 의생활계획 (1)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2) 의복의 선택	2. 옷감과 의복의 기능 (1) 섬유의 종류와 특성 (2) 실/ (3) 옷감의 조직 (4) 옷감의 가공 (5) 의복의 성능	3. 의복의 세탁과 보관 (1) 의복의 일상관리 (2) 세탁/ (3) 보관	4. 간단한 의복만들기 (1) 의복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나 (2) 양복의 원형만들기/ (3) 조끼 만들기
F	1. 의복과 개인과의 관계 (1) 편안하고 아름다운 옷차림을 하려면/ (2) 의복 구매를 계획적으로 하려면	2. 의복재료에 대한 이해 (1) 옷감으로서 갖추어야할 성능/ (2) 섬유의 종류와 특성/ (3) 옷감의 종류와 특성/ (4) 옷감의 성능개선을 위한 가공법	3. 의복의 손질과 보관 (1) 의복의 손질은 어떻게 하는가/ (2) 의복의 보관은 잘해야한다	4. 간단한 의복만들기 (1) 의복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나 (2)양복의 원형만들기 (3)조끼만들기
G	1. 인간과 의복 (1) 의복의 역할과 올바른 선택 (2) 의생활계획과 구매	2. 옷감의 섬유,조직,가공 (1)섬유/(2)실과 옷감 (3)인체생리와 의복	3. 의류의 세탁과 보관 (1) 세탁	4. 간단한 의복제작 (1) 의복구성의 기초(I) (2) 의복구성의 기초(II)
H	1. 인간과 의복 (1) 의복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의복선택은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2. 의복의 재료와 성능 (1) 섬유/ (2) 실/ (3) 옷감	1. 인간과 의복 (3) 의복의 모양과 수명을 오래 유지하려면	3. 파자마 만들기 (1) 디자인하기/ (2) 치수재기/ (3) 옷본만들기/ (4) 재료준비하기/ (5)마름질하기/ (6) 시침바느질 및 보정하기/ (7) 본바느질하기 4. 남자한복바지 만들기 (1) 형태와 명칭/ (2) 옷본만들기/ (3) 옷감준비하기/ (4)마름질하기/(5)바느질하기

계", "의복과 개인", "인간과 의복"의 명칭으로 의복의 기능, 의복디자인, 의복선택 등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피복재료 분야의 경우 "옷감과 의복", "의복재료의 종류와 성능", "의복 재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전 교과서마다 다른 명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구성 분야의 경우 각 교과서별로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목차의 제목은 "의복구성", "간단한 의복 만들기", "옷 만들기", "파자마, 남자 한복 바지 만들기"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구성실습의 내용을 볼 때, H교과서의 경우는 파자마와 남자 한복 바지를 두 chapter로 구성하여 의복구성 분야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교과서 의류학 영역 중 의복구성 관련 소영역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의복구성 관련 소영역별로 교과내용의 제시 여부를 표로 제시한 결과는〈표 8〉과 같다.

의복구성 관련 분야는 계측 방법, 제도이론, 원형제도, 옷의 종류별 패턴제도, 원형 활용, 요척, 마름질, 손바느질, 재봉틀 사용법, 가봉, 보정법, 봉제과정, 끝마무리로 나누어 볼수 있다. 계측 방법의 경우 A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었으나 계측점 및 계측 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 이론의 경우도 C, D, E, F, G에서 제시하고는 있었으나, 제도기호 제시 등의 단편적 내용이 대부분으로, 다아트 위치 및 구성원리, 길폭의 산정 등은 G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원형제도의 경우, G와 H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길원형 제도를 다루고 있었으며, 소매원형은 A, D, E, F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고, 스커트는 A, D, G교과서에서, 슬랙스는 D, E, G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다. 특히 D교과서는 모든 종류의 원형을 다루고 있었으며, H교과서는 원형은 제시하지 않은 반면 옷의 종류에 따른 패턴 제도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의 활용부분에서도 E, G, H교과서를 제외한 5개 교과서에서 원형 활용법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길원형의 활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척과 마름질 방법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으나, 마름질 방법에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손바느질법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다루지 않는 교과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봉틀 사용법의 경우는 D, E, F, H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봉 및 시착법에 대한 설명은 A와 D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으나, 시착 후 보정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보정법 설명은 E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봉제과정 및 봉제 순서에 대한 설명은 전체 교과서에서 공히 제시하고 있었으며, 다른 부분에 비해 할애 비중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끝 마무리는 C와 H교과서를 제외한 전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교과서의 의복구성 영역에서의 교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표 9〉와 같다.

〈표 8〉 의복구성 관련 소영역별 교과내용의 제시 여부

구분	계측 방법	제도 이론	원형 제도	옷의 종류별 패턴제도	원형 활용	요척	마름질	손바느질	재봉틀 사용법	가봉 및 보정	봉제 과정	끝마무리
A	×	×	○	×	○	○	○	○	○	○	○	○
B	○	×	○	×	○	○	○	×	×	×	○	○
C	○	○	○	×	○	○	○	×	×	×	○	×
D	○	○	○	×	○	○	○	×	○	○	○	○
E	○	○	○	×	×	○	○	×	○	○	○	○
F	○	○	○	×	○	○	○	×	○	×	○	○
G	○	○	×	×	×	○	○	×	×	×	○	○
H	○	×	×	○	×	○	○	×	○	×	○	×

○: 제시됨 ×: 제시 안됨

〈표 9〉 의복구성 영역에서의 교과 내용의 분석 결과

구분	구성이론	인체계측방법	원형제도	의복제작과정
A	· 양복과 한복의 차이 · 입체재단과 평면재단의 차이	치수재기	길, 소매 스커트 원형 제도	잠옷옷본만들기→시침바느질 및 가봉→본바느질→끝마무리
B	· 입체구성과 평면구성의 차이	치수재기	길원형 제도	1) 작업복 디자인과 본뜨기→재료준비→마름질→바느질과 끝정리→평가/정리하기 2) 염낭 디자이과 본뜨기→재료준비→마름질→바느질과 끝정리
C	· 한복의 특징치수재기 · 서양복의 특징	한복바지원형 (서양복)	길원형제도	1) 남자한복본뜨기→마름질→바느질 2) 조끼디자인결정→본뜨기→마름질→바느질
D	· 의복의 구성방법 · 의복구성시의 주의사항	치수재기	길, 소매, 스커트, 바지원형제도	조끼옷본만들기→마름질→바느질하기
E	· 의복구성의 원리	치수재기 원형 제도	길, 소매	셔츠와 짧은 바지 마름질→보정하기→본바느질→뒤정리→평가
F	· 의복구성방법	치수재기 원형 제도	길, 소매	조끼디자인하기→옷본제도→재료준비→ 마름질→바느질하기
G	· 없음	치수재기	원형제도 없음 (스커트, 슬랙스 제도)	1) 스커트디자인→옷본제도→옷감준비와 마르기→바느질하기 2) 슬랙스디자인→옷본제도→바느질하기
H	· 없음	치수재기	원형제도 없음 (파자마 상하의 제도)	파자마디자인하기→옷본만들기→재료준비→마름질→시침바느질 및 보정→본바느질

대부분의 교과서는 의복구성 방법의 차이를 서양복식과 한국복식, 또는 평면구성법과 입체구성법의 차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었으나, G와 H교과서는 이론적 설명없이 곧바로 제도를 다루고 있었다.

G교과서를 제외한 전체 교과서에서 계측점, 계측기준선, 계측 방법을 다루고 있었고, 모든 교과서에서 원형이나 옷의 종류에 따른 디자인 패턴을 제시하고 있었다.

A교과서는 의복제작의 기초과정으로 마름질하기와 바느질하기를 독립시켜 다루고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제작하고자하는 옷의 종류별로 마름질과 바느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실제 제작실습을 하는 의복 및 소품을 종류별로 비교한 결과는〈표 10〉과 같다.

전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 총 개수는 15개이며, 옷의 종류별로 볼 때 남자한복, 파자마상의, 셔

〈표 10〉 제작실습을 하는 품목비교결과 (단위: 개)

구분	개수	남성복	여성복							소품
		남자	서양의복 상의			서양의복 하의			기타복	
		한복바지	파자마 상의	셔츠	조끼	파자마 하의	스커트	팬츠		
A	2	-	1	-	-	1	-	-	-	-
B	2	-	-	-	-	-	-	-	1(에이프런)	1(염낭)
C	2	1	-	-	1	-	-	-	-	-
D	1	-	-	-	1	-	-	-	-	-
E	2	-	-	1	-	-	-	1	-	-
F	1	-	-	-	1		-		-	-
G	2	-	-	-	-		1	1	-	-
H	3	1	1	-	-	1	-	-	-	-
계	15	2	2	1	3	2	1	2	1	1

츠, 조끼, 파자마 하의, 스커트, 슬랙스 그리고 기타복으로 에이프런, 이외 소품으로 염낭 등 총 9개였다. 이 중 여성복이 12개에 달해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었으며, 남성복이 2개로 13.3%, 기타 염낭이 6.7%에 달하고 있었다. 의복구성에서 다루는 옷의 종류는 여성복은 모두 서양의복이었고, 남성복은 한복인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선행연구 등에서 많은 중·고교 재학생이 여자 한복저고리 등의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을 교과서 집필시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교과서의 각 chapter 후미에 있는 심화 학습에 제시되어 있는 의복구성분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C교과서를 제외한 전체 교과서에서 의복구성분야와 관련된 심화학습을 제시하고 있었다. A교과서와 G교과서는 학습방법 구분상 이론 탐구에 해당되며, A교과서는 의복제작과정, 치수법, 마름질, 시침질, 가봉, 보정 등 의복 제작공정별 이론을 재정리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있었고, G교과서는 스커트 제도시 다트 분량과 길이, 허리선의 전후차 등 제도 이론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나, 이 내용은 본문의 스커트 제도에 앞서 설명되면 패턴제도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 D, E, F교과서의 심화학습편에서는 본문과 연장되어 제도 및 봉제 등을 다루고 있었다. 이 중에서 D교과서는 본문에서는 길이가 짧은 조끼를 다루고 있었고, 심화학습에서는 길이가 긴 조끼 제도 및 봉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B, E, F교과서에서는 본문과는 다른 옷의 종류의 제도 및 봉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교과서에서는 여성 set-in 슬리브와 스포츠 칼라 블라우스의 제도 및 봉제법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었으나, 난이도가 높아 고등학생의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H교과서는 재봉틀 사용법을 심화학습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본문의 교과내용에서 의류 봉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심화학습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교과서에 제시된 손바느질 기법을 비교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A, D, F, H교과서의 경우는 공그르기, 감침질, 새발뜨기 등의 단처리 방법이외에도 시침질과 단추구멍 또는 버튼홀 스티치 등을 다루어 가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손바느질법을 교과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B교과서의 경우는 감침질만을 다루고 있었고, C교과서는 속시침과 감침질을, E교과서도 시침질만을 다루고 있어 포괄적인 교과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옷의 종류와 재봉틀 사용법 제시 여부 및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 기법을 비교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재봉틀 봉제 기법을 교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전체 교과서의 50%인데 비해 전체 교과서에서 재봉틀 기초봉제, 솔기처리법, 부분봉제와 조립봉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내용의 구성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심화 학습에 제시되어 있는 의복구성분야의 내용

구분	심화학습 내용
A	의복제작과정, 치수법, 마름질, 시침질, 가봉, 보정 등 의복 제작공정별 이론
B	원형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복 만들기
C	없음
D	길이가 긴 조끼 만들기
E	파자마 상하의 만들기
F	여성 셀인 슬리브 제도 및 봉제법, 스포츠 칼라의 블라우스의 제도 및 봉제법
G	스커트 제도시 다트 분량과 길이, 허리선의 전후차 등 제도 이론
H	재봉틀 조작법, 직물두께에 따른 바늘땀의 크기

〈표 12〉 교과서에 제시된 손바느질 기법 비교결과

구분	교과내용에 포함된 손바느질 기법
A	공그르기, 새발뜨기, 감침질, 버튼홀스티치, 박음질, 휘갑치기
B	감침질
C	속시침, 감침질
D	공그르기, 시침질, 실표뜨기, 단추달기, 버튼홀스티치
E	시침질
F	시침질, 실표뜨기, 공그르기, 감칠질, 버튼홀스티치, 단추달기
G	시침질, 감침질, 공그르기, 버튼홀스티치, 홈줄임
H	시침질, 박음질, 공그르기, 실표뜨기, 홈줄임

〈표 13〉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옷의 종류와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 기법

구분	제작 품목	재봉틀 사용법 제시여부	기초봉제	솔기/ 단처리법	부분봉제	조립봉제
A	파자마 상하의	○	직선박기, 곡선박기, 오버록, 인터록	가름솔/ 접어박기	바이어스테잎처리, 고무테이프봉제	목과 바이어스테잎봉제, 진동과 바이어스테잎봉제, 바지 앞뒤밑위길이 봉제
B	작업복 염낭	×	직선박기, 곡선박기, 모서리박기	가름솔/ 접어박기, 누름상침	끈만들기, 안단제작	앞안단봉제, 염낭창구멍내 박고 뒤집기, 앞뒤어깨 연결, 앞뒤길과 끈봉제
C	한복바지 조끼	×	직선박기, 곡선박기	가름솔/ 바이어스단	허리띠, 대님제작 다트박기, 바이어스테잎처리	사폭연결, 창구멍내 박고 뒤집기, 앞뒤어깨연결, 앞뒤판 옆선 봉제
D	조끼	○	직선박기, 곡선박기	가름솔	안단제작	진동 안단봉제, 앞안단 봉제, 앞뒤어깨연결, 앞뒤판 옆선 봉제
E	셔츠 짧은바지	○	직선박기, 곡선박기, 지그재그박기	가름솔/ 접어박기	안단제작, 옆트임	바지앞뒤밑위봉제, 앞뒤어깨연결, 앞뒤판 옆선 봉제
F	조끼	○	직선박기, 곡선박기	가름솔/ 누름상침, 도련단	안단제작	진동 안단봉제, 앞안단 봉제
G	스커트 슬랙스	×	직선박기, 곡선박기	가름솔/ 도련단	지퍼박기, 옆주머니제작, 벨트고리만들기	벨트와 허리선연결, 지퍼달기, 벨트고리와 허리벨트 고정
H	파자마 상하의	○	직선박기	가름솔/ 접어박기	안단제작, 고무테이프 봉제	앞안단 봉제, 앞뒤어깨연결, 앞뒤판 옆선 봉제, 길과 소매봉제, 바지앞뒤밑위봉제

A교과서의 경우는 직선박기와 곡선박기 외에도 오버록, 인터록, 단추구멍 박기 등의 실습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제 부분 봉제와 조립봉제에 사용되는 본봉기 재봉에 비해 고등학교의 현실 상 학생들이 직접 다룰 수 없는 특종 재봉틀 봉제 기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교과서의 경우에는 작업복과 염낭의 봉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봉틀의 직선박기와 곡선박기를 교과내용으로 다루고 있었고, 솔기처리법과 부분 봉제도 두 옷의 종류의 봉제에 사용되는 내용을 위주로 교과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업복이 실제적으로는 에이프런 제작이었으며, 염낭의 경우도 의류가 아닌 소품에 해당되므로 학생들에게 의복의 원형을 이해하고, 이 원형이 옷으로 제작되었을 때 어떤 형태와 구조를 지니는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C교과서의 경우는 한복으로서 남자 바지와 서양복으로서 조끼의 제도 및 기초봉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교과의 내용 안배는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기초봉과 솔기처리, 부분 봉제, 조립 봉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인 교과내용 구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D교과서와 F교과서의 경우는 모두 서양복의 여성 조끼제작에 필요한 제도와 재봉틀 봉제기법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교과서의 경우는 셔츠와 반바지를 제작하기 위한 제도와 재봉틀 봉제기법을 다루고 있었으나, 셔츠의 경우는 요우크, 칼라, 셔츠커프스, 트임 등의 재단 과정 및 봉제 기법의 이해가 어려워 의류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교과목으로도 교과내용 지도가 쉽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볼 때 고등학교 교과내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바지의 경우도 스커트에 비해 제도와 재단, 봉제가 어려운 옷의 종류으로 고등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교과 내용의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교과서의 경우는 상의는 배제하고 하의로서 스커트와 바지만을 교과내용으로 설정해 이에 따른 제도와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기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의의 구성 못지않게 상의의 설계를 위한 길원형의 설계와 원형의 활용에 대한 교과내용이 빠져있어 균형있는 의복구성과목에 대한 이해

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H교과서의 경우는 원형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파자마의 상하의를 제도하여 재봉틀을 이용해 봉제하고, 한복 바지를 제도한 후 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교과서의 체제 및 집필자 구성, 지도 영역과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교과서의 체제 비교 분석 결과, 최고 페이지와 최저 페이지의 교과서 쪽수 차가 무려 29쪽에 달해 교과내용의 다양성과 충실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총페이지와 본문페이지의 쪽 차이를 볼 때, 적게는 6쪽, 많게는 27쪽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세부 영역별 쪽수를 비교한 결과 가족/가정자원관리/소비자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의생활 분야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식생활분야보다 작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교과서 저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의 저자 수는 6명에서 8명으로 나타났다. 구성별로 볼 때도 5종의 교과서는 1명 이상의 교사를 집필진에 포함시켰으나, 다른 교과서의 경우는 교사는 배제시키고 교수로만 집필진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영역별 저자의 세부 전공을 비교해 볼 때, 의생활 분야 전공 교수의 참여가 평균 1.6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생활, 가족/가정자원관리/소비자 분야 전공교수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과서 중 의류학 영역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의류학분야 전공 교수 중 의류소재/의류정리 전공 교수의 집필진 참여율이 높은 반면, 복식사/한국의복구성, 서양의복구성 전공 교수의 참여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수업 시 구성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고, 교과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집필진의 변경이 요구된다.

세부영역별 쪽수는 복식사회 분야와 피복 관리 분야의 교과 분량이 가장 적고, 의복구성 분야의 경우는 모든 교과서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류학 세부 분야별 교과내용을 분석한 결과, 복식사회 분야의 경우 의복의 기능, 의복디자인, 의복선택 등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피복재료 분야의 경우 4개 교과서의 경우는 섬유, 실, 옷감 등에 대해 다루고 있었고, 이외 교과서는 가공 및 염색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복 관리 분야의 경우에도 세탁 및 보관의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의복구성 분야의 경우 각 교과서별로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3. 교과서 의류학 영역 중 의복구성 관련 소영역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의복구성 관련 세부 분야 중 계측 방법의 경우 1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었으나 계측점 및 계측 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제도 이론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었으나, 제도기호 제시 등의 단편적 내용이 대부분으로, 다트 위치 및 구성원리, 길폭의 산정 등은 한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원형제도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길원형 제도를 다루고 있었으며, 소매원형과 스커트 및 슬랙스는 일부 교과서에만 다루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교과서는 원형은 제시하지 않은 반면 옷의 종류에 따른 패턴 제도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척과 마름질 방법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었으나, 마름질 방법에서 옷본 배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손바느질법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다루지 않는 교과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봉틀 사용법의 경우는 4개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봉 및 시착법에 대한 설명은 일부 교과서에서만 제시하여 교과내용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봉제과정 및 봉제 순서에 대한 설명은 전체 교과서에서 공히 제시하고 있는 등 다른 부분에 비해 할애 비중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끝 마무리는 2개 교과서를 제외한 전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작실습을 하는 의복 및 소품을 종류별로 비교한 결과, 옷의 종류별로 볼 때 남자한복, 파자마상의,

셔츠, 조끼, 파자마 하의와 스커트와 슬랙스, 기타복으로 에이프런, 소품으로 염낭총 9개이었다.

교과서의 각 chapter 후미에 있는 심화 학습에 제시되어 있는 의복구성분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론탐구 분야와 본문과 연장되어 제도 및 봉제 등을 다루고 있었으나, 일부 교과서의 경우는 난이도가 높아 고등학생의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 교과서에 제시된 손바느질 기법을 비교한 결과도 각 교과서별로 제시된 학습 내용에 차이가 무척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옷의 종류와 재봉틀 사용법 제시 여부 및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 기법은 비교한 결과, 재봉틀 봉제 기법을 교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전체 교과서의 50%인데 비해 전체 교과서에서 재봉틀을 이용한 봉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내용의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교의 교과목은 대학 진학을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 하므로, 이 시기의 교과서 내용 및 수업 수준과 방법은 학생들의 교과 흥미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관심을 촉진할 수 있는 난이도 수준의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점차 가정교과의 중요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가정학 분야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단순히 가정 생활에 필요한 교과내용만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야한다.

셋째, 가정과목이 남녀 학생 모두가 생활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교과목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피교육자로 고려한 새로운 교과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의류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을 포함시키고, 보다 동시대적인 전공별 접근을 통해 의류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고등학생들과 교사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복 구성분야 실습 등에 대한 교과내용의 재조정을 통해 자칫 바느질이라는 인상을 주어 의류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현행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요청된다. 더 나아가 가정과목을 학습한 학생들이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류학 관련 전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교과내용 개편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과목을 학습한 학생들이 의류학 분야의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이들의 교과 수업 내용과 교과목 이해도 및 난이도를 바탕으로 한 대학의 의류학 관련 전공내에서의 교과 과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후속연구로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기술 · 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교과내용의 적절성 검증과 난이도 조정 및 교과서내 세부 전공의 적정 안배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성화경(1994). 중 · 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 분야 교육내용 연구-학생, 교사, 전공 교수의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61-72.

윤인경(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2). 87-99.

이송자 · 구영순(1993). 고등학교 가정과 실험 · 실습 내용의 적정성 연구. 경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집. 제 13집 166-177.

유송옥 외 7인(1996). 고등학교 가정. (주)교학사

성화경 외 7인(1995). 고등학교 가정. (주)중앙교육

유영주 외 7인(1995). 고등학교 가정. (주)교문사

김은애 외 6인(1995). 고등학교 가정. (주)지학사

이인희 외 5인(1996). 고등학교 가정. (주)금성출판사

이승신 외 6인(1995). 고등학교 가정. (주)천재교육

서병숙 외 6인(1995). 고등학교 가정. (주)두산

윤인경 외 5인(1995). 고등학교 가정. 교학연구사